

공용주차장 활용도 높여 주차난 해소한다

1시간 무료에 주차료 감면 대상자 대폭 확대...주차장도 확충
목포시, 혜택 주는 대신 불법 주차차 견인·과태료 등 단속 강화

목포시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주차차 근절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공용주차장 인근 불법 주차차에 대해서는 견인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 주차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내 공용주차장(유료)의 주차율은 40~50%선으로 공용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인근에 불법 주차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른 민원이 속출해 공용주차장 주차를 제고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주차장 요금 30분 무료를 1시간 무료로 연장하기로 했다. 1시간 무료로 연장할 경우 주차율이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 시는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 대상자도 표창을 받은 시민과 기타 사회 공헌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용주차장 인근 불법 주차차에 대해서는 견인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현재 목포시 지역 공용주차장은 총 45개소(노상 5개소, 노외 40개소)에 2779면으로 이 가운데 13개소 861면은 유료이고 32개소 1918면은 무료로 운영된다.

형태별로는 12개소 740면은 목포시 직영, 5개소 344면은 위탁운영, 28개소 1695면은 무료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8월말 기준 1억1900만원에 달한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1시간 무료로 연장할 경우 주차요금 수입 감소와 함께 강력 단속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며 “무로 운영 주차장 일부를 유료화시켜 수입 감소 부분을 보전하고 주차단속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민원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미 조성된 공용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에 22억을 투



목포시가 공용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0분 무료에서 1시간 무료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목포시 제공>

입해 6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용당동 공용주차장(30면, 9억원), 해산물 상가 공용주차장(30면, 9억원), 북항차관주택 내 공용주차장(30면, 9억3000만원), 보건소-북항 주택로 구간 갓길 주차장(90면, 10억8000만원) 등 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총 248면을 신규로 조성한다.

또 주민참여 예산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용당2동 동네 주차장(31면), 동명동 물

양장 주변 주차장(대형버스 2대), 만호동 물양장 주변(대형버스 4대), 죽교동 북항로 마을주차장(15면) 등 5곳에 62면의 주차장 조성사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시간대별 주차 허용을 확대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개설 추진

길이 560m 100억 투입

목포시의 대표적인 섬인 달리도와 외달도를 연결하는 보행 연도교 개설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2일 “달리도~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을 통해 서남권 대표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상보행 연도교는 길이 560m에 폭 3m로,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80억, 시비 2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6년 10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올 4월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보행 연도교가 반영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 계약심사를 마친데 이어 오는 10월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추진하고 내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는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

■달리~외달도 보행연도교 위치도



다.

특히 사량의 섬 외달도는 해수욕장과 한옥 민박 등 기존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

돼 있어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될 만큼 가족 휴양지로 손색이 없고 달리도는 ‘달리 8경’이 유명해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해양관광 명품 도시 목포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올도~달리도~해남 화원으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 건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며 “두 섬을 연결하는 해상 보행 연도교가 개통되면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서남해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솔라시도, 목포대와 스마트시티 산학협력

워크숍 참여 학생들 아이디어 수렴...멘토링 활동도 계속

솔라시도 구성지구 SPC(특수목적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이하 솔라시도)은 지난 31일 목포대의 다학제 융합캠프 워크숍에 참여해 솔라시도의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젊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학협력 활동을

벌였다.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목포대 학생들과 산학협력단, 공학교육혁신센터 관계자들을 비롯해 솔라시도 산업개발본부 전문가들과 목포시 및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선 솔라시도가 개발의 주요 콘셉트로 추진하는 태양광기반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스마트팜, 자율주행전기차, ICT기반 공공 복지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시티의 융합 분야를 설명하고 산학협력의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들은 지역 내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했다.

솔라시도는 토론 내용을 취합해 향후 융합동아리 활동을 통해 R&D 및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이번 워크숍을 계기

로 목포대와 산학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필요시 목포대 동아리와 멘토링 활동을 지속하고 이런 결과물들이 활성화될 경우 ‘솔라시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솔라시도는 오는 18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 목포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전남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펼치는 ‘제4회 드림하이 콘테스트’가 오는 15일 목포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대회 모습.

새마을문고, 지역 문화공동체 확산 앞장

청소년 위한 다양한 행사 펼치
15일 ‘드림하이 콘테스트’ 개최

새마을문고와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겨루는 축제한마당을 비롯해 인문학 가족퀴즈 문화골든벨 대회,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문화공동체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지부장 박영길)는 오는 15일 목포에서 ‘제4회 드림하이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드림하이 콘테스트는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는 전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고생 70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는 앞서 지난 달 25일에는 ‘찾아가는 인문학 가족퀴즈 문화골든벨’ 대회를 대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밝고 건

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공동체운동에 참여해 풍요로운 문화생활 실천운동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 가족이 2인(학부모·학생) 1조로 총 60조 120명이 참여했으며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영길 새마을문고 목포시 지부장은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은 물론 지역의 문화공동체 운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내 작은 도서관과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해 교양강좌와 수목 캘리그라피, 글짓기, 만들기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는 올해 들어 12개 동 분회 조직을 마쳐 목포시 지역 내 23개 동 전체에 분회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시지부는 이를 계기로 동마다 조성돼 있는 작은 도서관과 MOU를 체결하고 동 분회 조직의 인재풀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통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경찰, 제16기 시민경찰학교 입학식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제16기 시민경찰학교 입학식(사진)이 지난 28일 목포경찰서에서 열렸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이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폭을 넓혀 주민과의 협력과 지지를 촉진시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민경찰학교 입학식은 평소 경찰업무에 관심이 많은 주민 32명을 선발, 2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까지 사이버범죄예방·생활법률·가정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실습·견학도 총 20시간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교육수료 후에도 시민경찰연합회에 가입해 범죄 취약지 합동순찰, 사회적 약자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충효동 270-15)

연 락 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